

# 2024 '이후'의 정치와 민주주의:

---

인문성의 복원과 시민정치지성 발현의 모색

김윤철

# 왜 또 정치? 웬 인문성? 웬 정치지성?

정치의 목적 &  
민주주의의 유의미성:  
인간 해방(liberation/解放)

: liber~ / freo~ (free)

: 자유(自由) / 息

: liberty / freedom

민주주의 정치의 방법:

‘지성(知性/intelligence)’의 실천!!!



# 정치란 무엇인가?

polis -> politics, police, policy

(res publica -> republic)

政治 = 政(正 + 攴) + 治(水 + 台)

정치:

‘문명’ 공동체(polis)의 유지와 재생산을 통해 ‘나와  
우리’의 삶과 해방을 위한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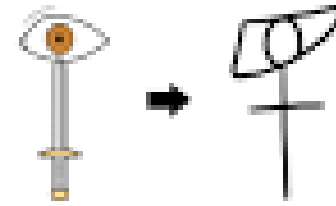
\* 문명(civilization/文明): civil~ / civility / community

\* polis = civility의 장소

# 민주주의의 의미

民은 누구인가?

\* 차티스트 운동의 진짜 의미?



## 상형문자

민자는 '백성'이나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민자는 氏(성씨 씨)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성씨'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민자의 금문을 보면 사람의 눈에 열십자가

ㄱ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송곳으로 사람의 눈을 찌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고대에는 노예의 왼쪽 눈을 멀게 하여 저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다. 민자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민자의 본래 의미는 '노예'였다. 물론 지금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지만, 글자의 유래를 보면 끔찍하기 그지없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 민주주의 '위기'의 의미

주권자 지위의 훼손과 약화

왜?

정치의 왜곡과 실종

-> '삶'의 방치

-> 갈등의 사유화 -> 강자독식

-> 과잉주체!!!

: 숨쉬며(자신의 마음으로) 살 수 없는 처지

: 反 해방의 현실 / (자기) 억압의 현실





# 과잉주체의 삶과 한국의 현실







# 과잉주체의 삶과 한국의 현실

(소득불평등 비교 2020년 세전 소득 기준, WID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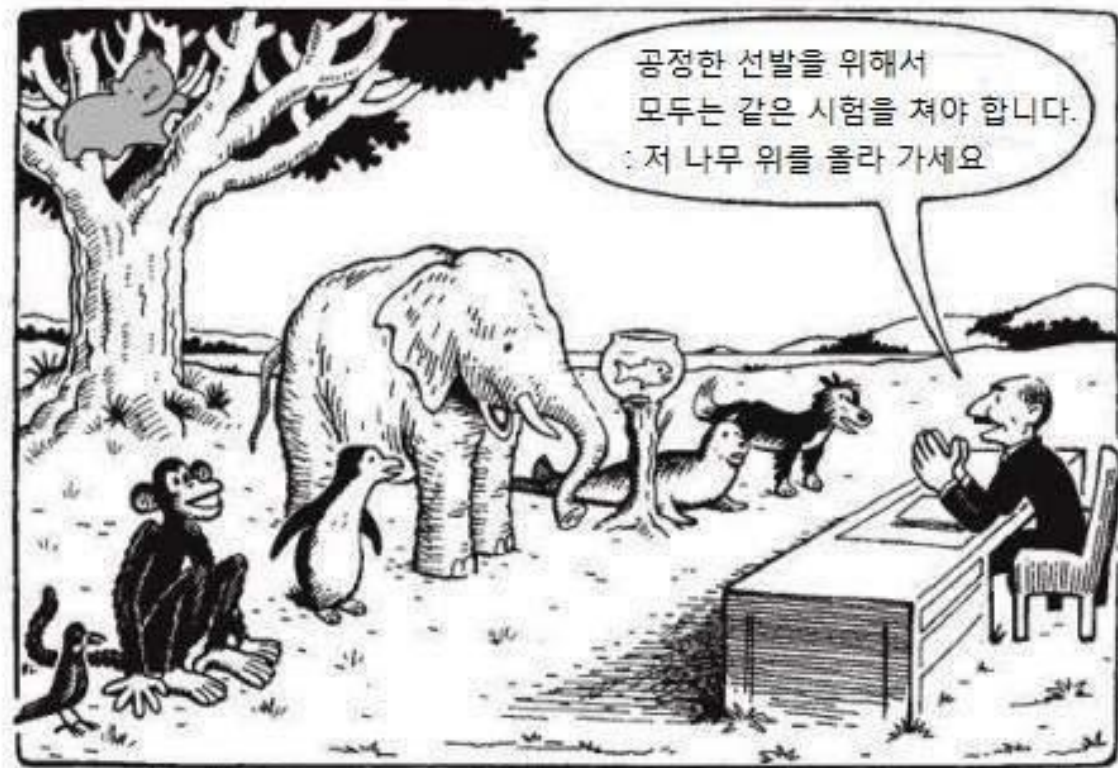
	최상위1%	차상위9%	소득합계	중위40%	하위50%	소득합계
스웨덴	10.5%	20.3%	30.8%	45.4%	23.8%	69.2%
미국	18.8%	26.7%	45.5%	41.2%	13.3%	54.5%
한국	14.7%	31.8%	46.5%	37.5%	16.0%	53.5%

# 과잉주체의 삶과 한국의 현실: 상/하위 10% 1인당 평균소득 (원), 국세청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2020- 2016
상위 0.1%	1,290	1,474	1,471	1,517	1,662	371
상위 10%	122	127.91	130.55	132.55	136.26	14.29
하위 10%	1.78	1.86	2.00	2.07	1.96	0.17

# 과잉주체의 삶과 한국의 현실

공정의 허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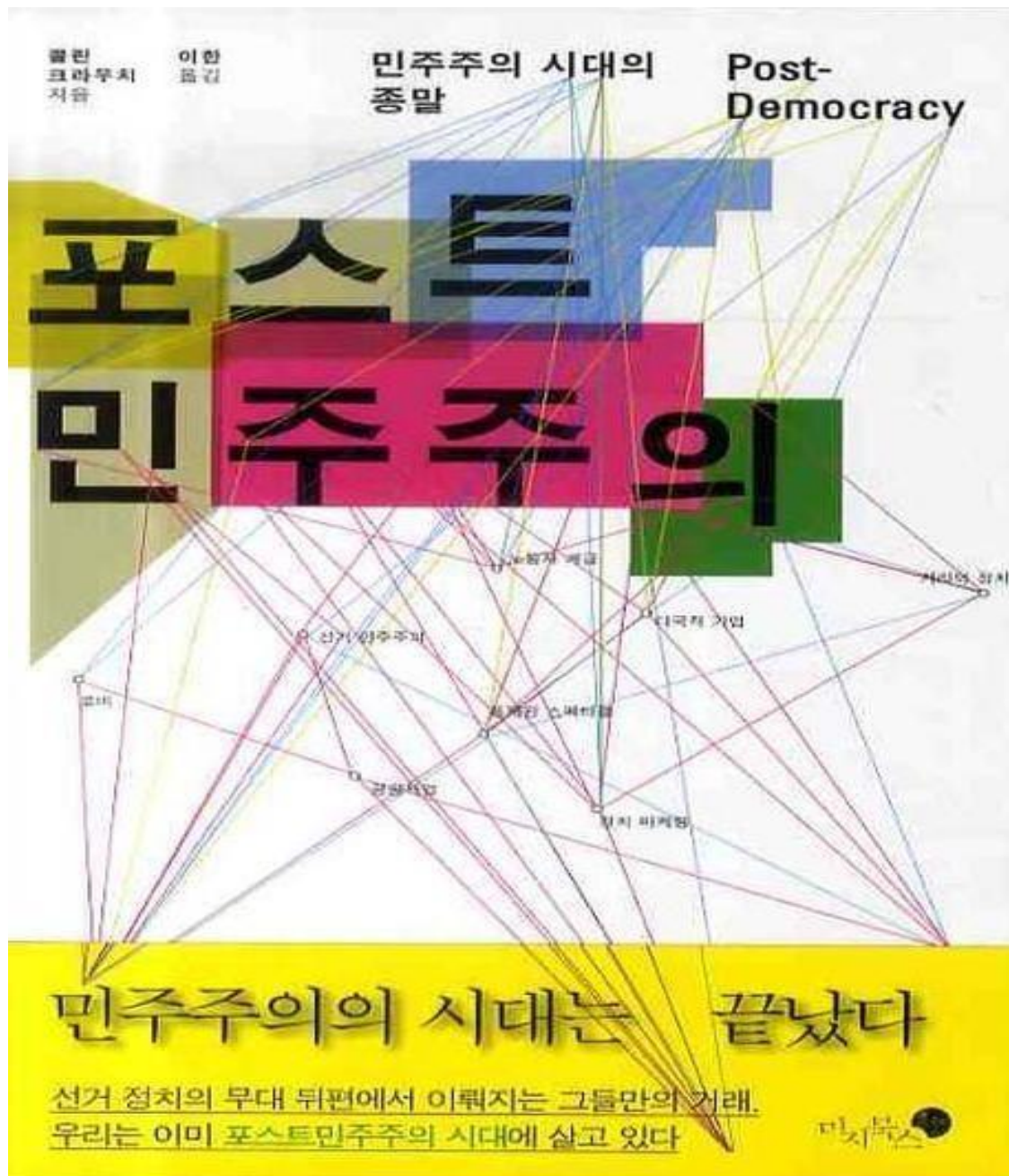
this' the f\*\*king watermark of 9GAG.COM







# 과잉주체의 삶과 한국의 현실





# ‘마지노선 민주주의’

형식과 절차의 운용에 의존해 국가권력, 특히 대통령 세력의  
사익추구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분출되는 대중운동적 에너지.  
사회경제적 쟁점과 갈등은 개인과 시장의 몫. 비자유적 자유, 즉  
굶어 죽을 자유의 수용

마지노선은 일상에서는 최후방어선의 의미로 쓰이지만, 보다  
중요한 군사적, 정치적 의미는 엄한 데다 전선 쳐놓고 멍때리다가  
결국 다 내줘 패망한다는 어리석은 짓의 대명사. 그런 의미에서  
마지노선 민주주의는 한국 정치적 맥락에서는 민주주의의 핵심  
본질인 ‘민’의 물질적 자원배분 결정권 신장의 문제는 방치하고,  
형식과 절차 지키기에만 열을 올리다가 결국 민주주의의 파탄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려



# 반지성주의 정치의 위험성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2022.5.9)

“정치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 민주주의 체제 작동의 원리와 조건

시간: “민주주의는 시간을 먹고 자란다”

말과 소통: “민주주의는 말과 소통의 부패로 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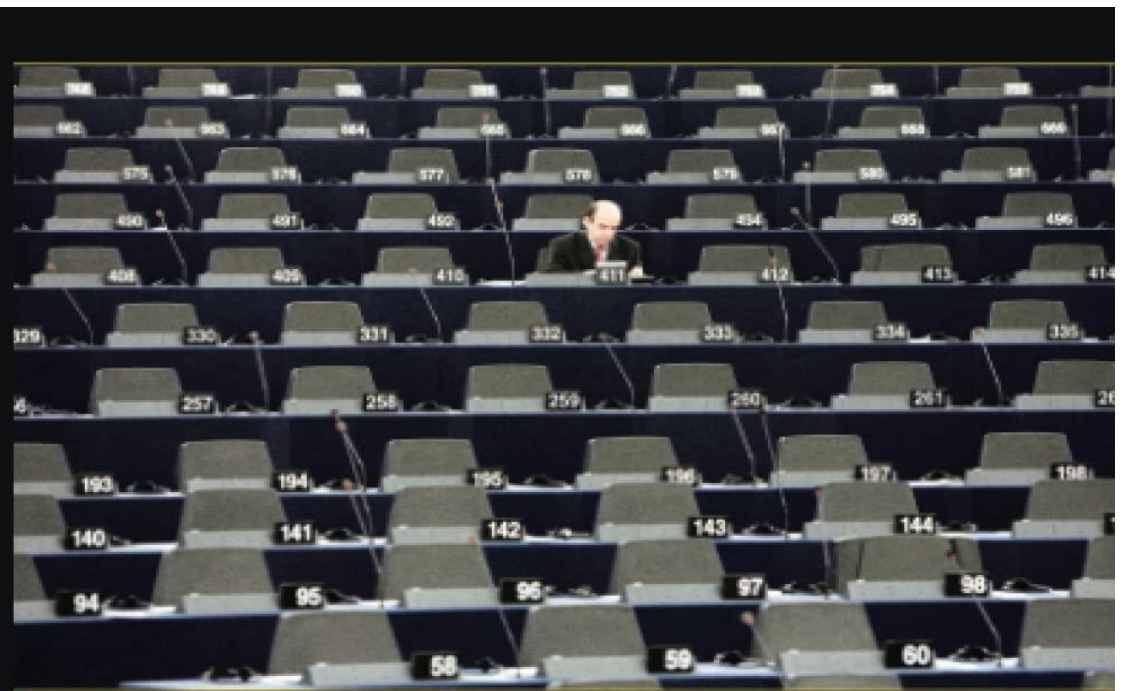
소수의 보호: “민주주의의 목적은 약소수자의 보호다”

#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에 끼치는 영향

시간의 삭제: 숙고-숙의의 (필요) 시간  
실종-속단과 단정의 횡행 -> 갈등 조정과  
해소를 위한 설득 동의 합의에 기반한  
'해법' 도출의 실패

말과 소통의 부패: 이성이 아닌  
(부정적/적대적) 감정의 자극 -> '분노의  
정치' -> 공동체성(유대감)의 약화 ->  
공동체 해체의 '정서'

소수자(약자)에 대한 배제 혐오: 특정  
집단의 과대대표 -> 자기 갱신과 혁신의  
아이디어와 동력의 상실 -> 체제정당성의  
약화



# RULING THE VOID

★★★★★★★★★★

THE HOLLOWING OF  
WESTERN DEMOCRACY

PETER MAIR



E.E. Schattschneider

The Semisovereign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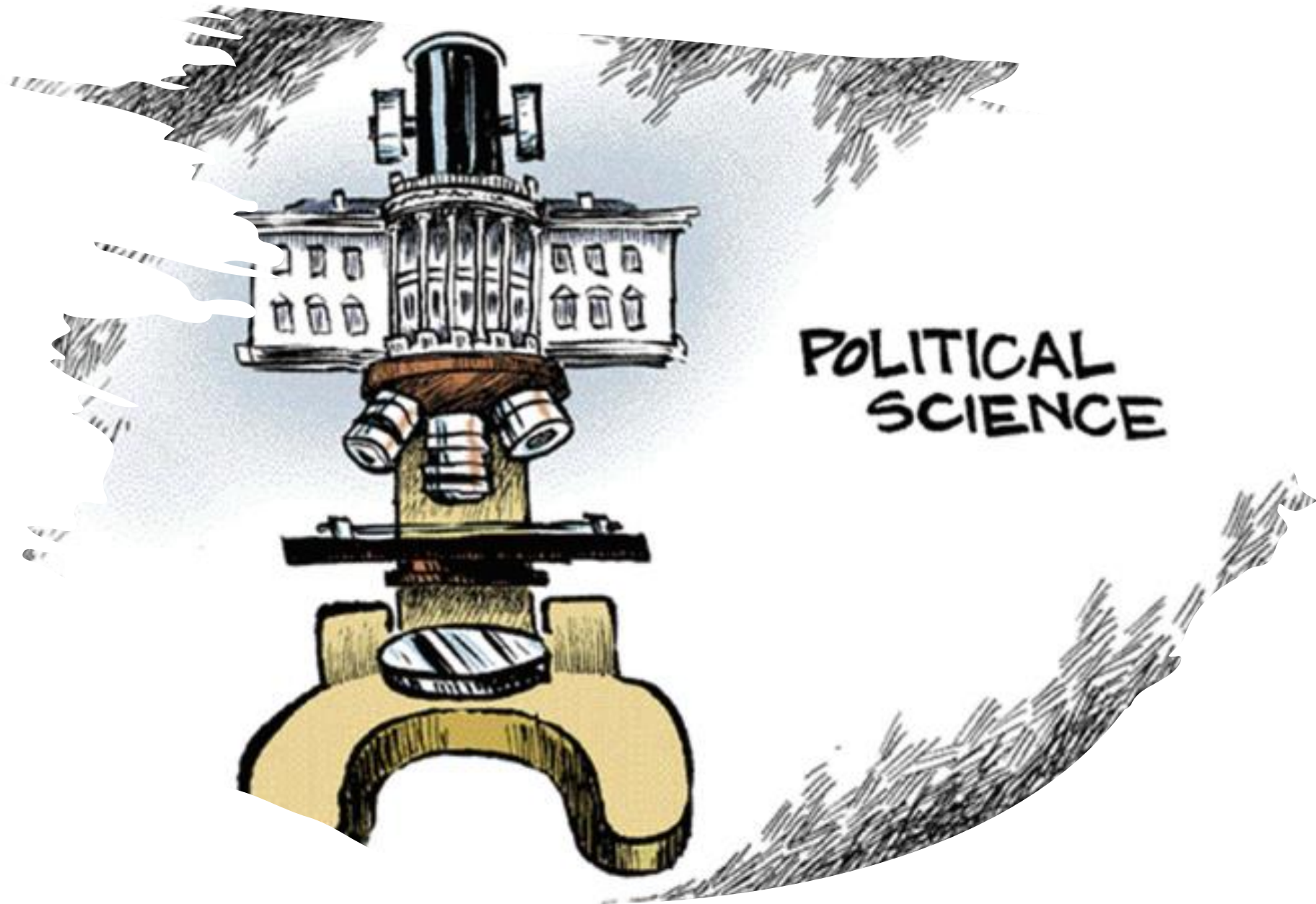
절반의 인민주권

E.E. 사츠슈나이더 지음 | 한재호 · 박수형 옮김

# 시민정치지성의 발현 모색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결함은 지적인 차원, 즉 사용 가능하며 효과적인 정의(definition)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좋은 정의는 민주주의에 관한 문헌들에서 자주 출몰하여 모든 사람에게 죄의식을 심어 줄 뿐 실현할 수 없는 규범적 내용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 시민정치지성의 발현 모색

특정 개인과 집단의  
행태에 속지 않기 ->  
'구조'를 읽기!

삶의 현실 읽기! 특히  
(교섭)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한 다수 보통사람들의  
현실

옳음의 강변이 아닌,  
좋은 실현이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기!

# 시민정치지성의 발현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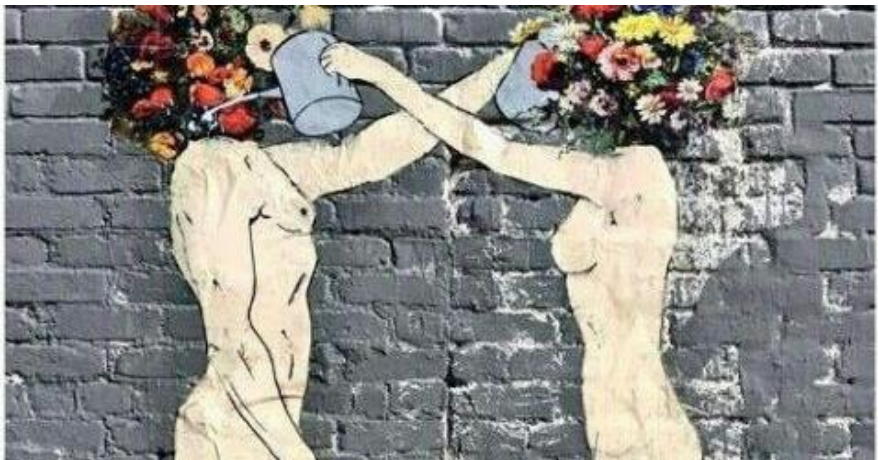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한 달에 92만원 받는 이분들은 투명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투명인간들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그 고압선 철탑 위에 올라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4명씩 죽어나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용산 남일당 그 건물에서 사라져간 다섯 분도 투명인간입니다. 이들은 아홉시 뉴스도 보지 못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 시민정치지성의 발현 모색



“...이분들의 삶이 고단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이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 과연  
있었습니까? 내일 새벽에도 6411번 버스는 정해진 시각에  
출발합니다. 수많은 투명인간들이 여전히 피곤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한다고 목소리 높여 외치지만  
이분들이 필요로 할 때 이분들이 손에 닿는 거리에 아직 우리는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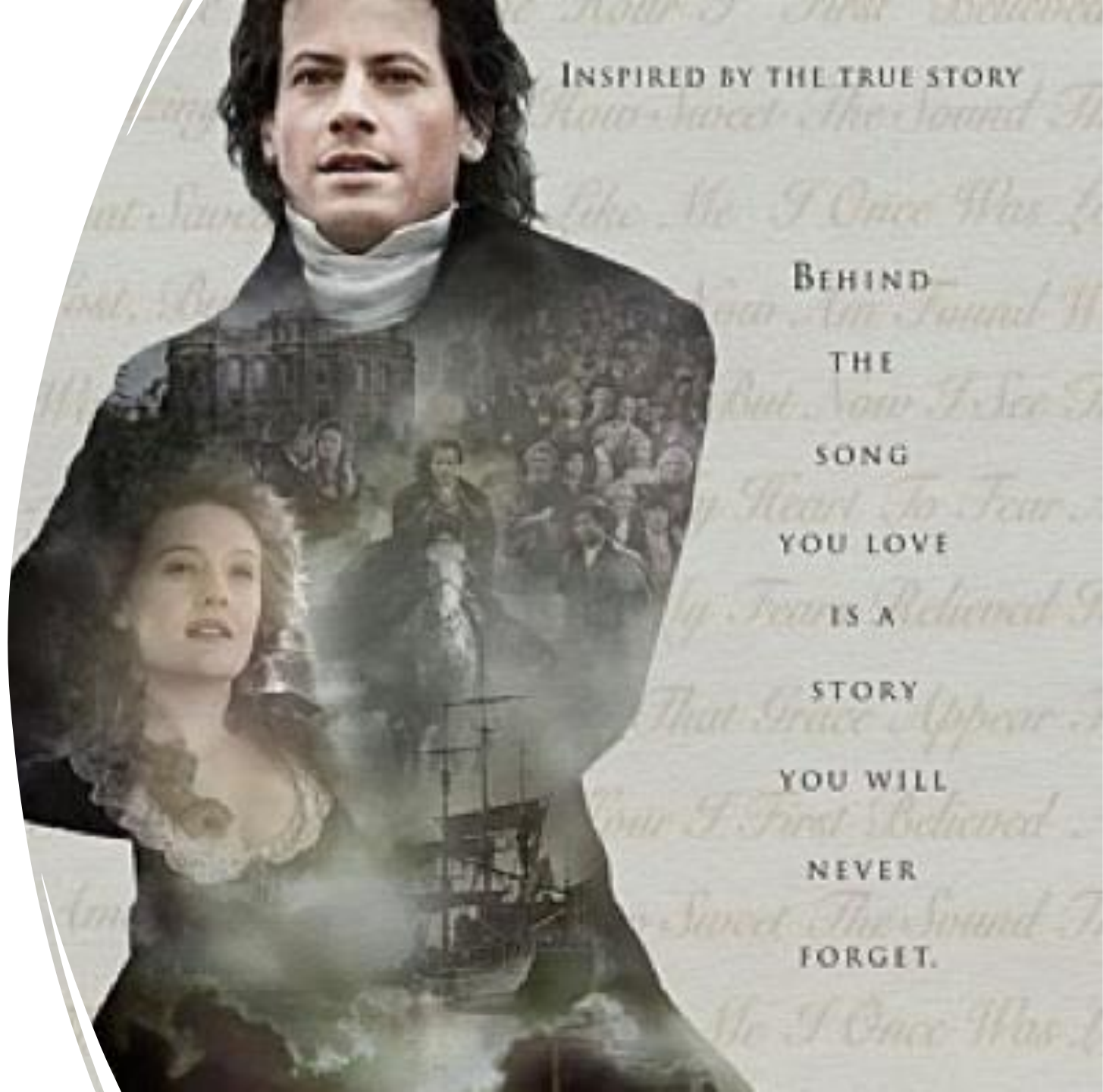
(노회찬 2012년 진보정의당 당 대표 수락 연설)

# 시민정치지성의 발현 모색

---

지성의 현실성-실천성에  
주목하기!

‘전략적 간지’의 중요성과 그것의  
발휘는 어떻게 가능한가?



# 시민정치지성의 발현 모색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를 이끌어낸 정치가 윌리엄 월버포스와 동료들의  
'정치적, 실천적 삶'

노예제 폐지 성공의 이유? 정치가의 신념과 열정, 좌절했으나 정의를 구현키  
위해 다시 분연히 떨쳐 일어나 도전하는 불굴의 의지?

작금의 정치가 후진 이유는 그러한 정치가와 동료들이 없기 때문인가?

그러한 정치가와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정치를 혹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또 그것을 위한 정치혁신을 성공할 수 있다?

월버포스와 동료들의 성공은 도덕적 신념과 열정의 동원, 좌절을 딛고 서는  
불굴의 의지로만 설명될 수 없는 것

그들의 성공은 목표에 대한 '직설적 주창'마저 삼가하면서, 반대자들마저  
동의할 수 밖에 없었던, 그래서 반대자들을 교란시킬 수 있었던,  
'애국심'이라는 명분을 활용하여 노예제를 지탱하고 있던 수단, 노예무역을  
무력화하는 전략을 고안해내고 실행했을 때, 비로소 얻어진 것

## 시민정치지성의 발현 모색

“월버포스 등은 영국과 전쟁을 치른 직후 적대관계에 있던 프랑스 선박들이 미국기를 달고 항해하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법안을 -노예제 폐지론자가 아닌- 한 의원에게 발의케 하였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던 미국 선박은 -국가로부터 나포 허가를 받은 해적선- 시락선이나 영국 해군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적대국인 프랑스 선박들이 그것을 이용해 해상무역을 하면서 영국의 국부를 위협하고 있으니, 시락선에게 미국기를 단 -프랑스 선박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대한 나포를 허용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영국 노예선의 80%가 해적들에게 노예를 빼앗길까봐 미국기를 달고 항해한다는 것에 착안한 것이었다. 즉 노예선의 항해를 막는 효과를 갖게 되는 법안의 통과를 통해 노예주들이 노예무역으로부터 이득을 기대할 수 없게끔 하면서, 노예제 폐지에 대한 반대의 이유를 없애는 '우회적' 방법을 썼던 것이다.”



# 시민정치지성의 발현 모색

---

시민주도의 정치판 만들기: '정치지성'의 발현

정치지성의 핵심:

첫째, 기성 정치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압력과 도전이 없으면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둘째, 그 압력과 도전이 제 정치세력의 혁신 경쟁을 촉발하는 데로 작용해야 한다.

셋째, 그 혁신경쟁의 결과는 특정 정치세력의 선거 승패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시민주권의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넷째, 시민주권의 투표권 행사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자원의 배분에 관한 정책결정권의 행사를 통해 구현된다.



# 시민정치지성의 발현 모색

“전체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은 웃을 줄 모르는 사람들과 웃을 줄 아는 사람들의 싸움이다” (로버트 맨지스)



# ‘나의 해방’을 위한 좋은 정치 만들기

저 너머 신계를 염원하며 함께 춤추기

